

# “백신 협상 마무리 단계… 조만간 구체적으로 공개”

정세균 국무총리, 관계부처회의 주제  
코로나19 백신 협상 상황 등 점검  
“계약 체결 시 국민께 투명하게 알릴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관련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개별 기업과의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약이 체결되는 대로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확

보를 위한 협상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백신 공동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박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1000만 명분, 해외 백신업체와의 개별 협상을 통해 2000만 명분을 각각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다.

정 총리는 “그동안 개별 기업과의 협상 과정 중이어서 진행 상황을 국민들께 상세히 알리지 못해 정부의 백신 확보 노력에 대한 일부 오해와 우려가 있었지만, 조만간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개별 기업들과의 계약 체결 이후 선입금 등의 예산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이 적극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최근 글로벌 백신 개발 기업들의 임상시험 결과가 속속 발표되며 백신 확보 준비 상황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필요한 만큼의 백신을 제때 확보한다는 정부 목표는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백신 개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백신 개발 성공 여부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해 추가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확보된 백신에 대한 접종 계획까지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어떤 백신 제약사와는 계약서를 검토하는 단계에 와 있고, 어떤 제약사와는 구매 조건을 계속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백신 3000만 명분을 계약을 통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추가적인 물량 확보에 대해서도 협의 중이다. 확보할 백신의 종류와 물량에 대해서는 12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 “감염 고리 못 끊으면 방역·의료대응 지속 불능 위기”

중대본 “지난 한 주 2000명 넘게 확진…  
각자의 일상 철저히 통제해달라”  
서울시 ‘1000만 시민 멈춤 기간’ 선포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3일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관련, “감염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방역과 의료대응 모두 지속 불능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가 일상 속에서 조용히 전파되면서 지난 한 주에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3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가족·지인 모임, 사우나, 체육시설, 학원, 의료기관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감염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불편하더라도 각자의 일상을 철저히 통제해달라”며 “정부도 범정부적 총력대응 체계를 구축해 일터와 생활터 중심으로 정밀방역을 강력히 추진하고, 거리 두기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한 인식 조사에서 ‘코로나19 감염은 운에 달렸다’는 답변이 거의 절반에 가까웠다”고 하는데 코

로나19 감염은 불운한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다”며 “누구도 감염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전했다.

서울시도 이 같은 상황에 맞춰 24일부터 연말까지를 ‘1000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의 연말 모임 자제와 이동 최소화를 위해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영을 감축하기로 했다.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충분한 안내 후 27일부터 운행 횟수를 각각 20%씩 줄인다. 향후 비상 상황이 지속되면 지하철 막차 시간도 자정에서 밤 11시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주형 기자

외교부, 2년 걸쳐 찍은 독도 4계절 사진  
일반 대중에 112장 무료 제공

2년에 걸쳐 촬영한 독도의 4계절 풍경 사진들이 일반 대중에 무료로 대거 제공된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 홈페이지 ‘공공데이터 개방’ 코너를 통해 지난 19일부터 ‘독도의 세계 이미지’ 사진 112장을 누구나 다운로드해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공공데이터 개방’ 사이트를 통해 다량의 독도 사진을 일반 국민에게 무료 제공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이트에는 봄과 여름, 가을, 겨울 등 계절별로 각 28장의 사진이 실려 있다.

사진 속에는 동도와 서도, 해상, 하늘에서 찍은 독도의 아름다운 절경은 물론 일출과 일몰, 노을 속 어선, 갯벌갈매기, 독도에 서식하는 유채꽃, 팥채송화 등의 모습도 담겼다.

이 사진들은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정부의 공공데이터 사업의 일환으로 일반에 무료 제공할 자료의 접촉·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 등에서 공공데이터 포털에도 제공하게 됐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주형 기자

2021학년도 1학기 대학생 국가장학금  
“12월 29일까지 신청하세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4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9일 오후 6시까지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가운데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대학 재학생·입학예정자·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중 신청자는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다음 달 31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 정보와 주민등록 전산 정보·가족관계 등록 전산 정보가 다른 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는 신청 1~3일 후 재단 홈페이지, 문자 안내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전화 상담실(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주형 기자



공무원 점심시간도 시차 두고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청 구내식당에서 공무원들이 시차를 두고 식사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부터 전국의 모든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수칙에 따라 강화된 근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연합뉴스

# 美 백신 책임자 “내년 5월쯤 집단면역 가능성”

백신접종 시작 시간표에 따른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총괄하는 ‘초고속 작전’팀 최고 책임자가 내년 5월께 미국에서 ‘집단 면역’이 달성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세프 슬라위 ‘초고속 작전’팀 최고책임자는 22일(현지시간)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인구의 70% 정도가 면역력을 갖는다면 집단면역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 계획에 따르면 5월쯤 그런 일이 일

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집단면역을 달성하면 바이러스의 광범위한 추가 확산을 걱정할 필요 없이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전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슬라위 최고책임자의 이 같은 전망은 12월부터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는 시간표에 따른 것이다.

우선 미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이르면 다음 달 11일부터 미국인들에게 접종하

기 시작할 것이라고 슬라위 최고책임자는 밝혔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다음 달 10일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화이자의 백신 긴급사용 승인 신청 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슬라위는 “승인으로부터 24시간 내에 백신을 접종 장소로 실어나르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라면서 “그래서 승인 다음 날인 12월 11일이나 12일에 첫 번째 사람들이 미국 전역에서 접종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12월에는 최대 2000만 명이, 이후에는 매달 3000만 명이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슬라위는 밝혔다. 연합뉴스